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호놀룰루, 하와이
파견대학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파견기간	2017.8.10~2018.5.10
귀국여부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저는 하와이 주립대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버스를 타면 와이키키 해변이 10-15분 거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처음에 너무 예쁘다 할 정도로 좋은 캠퍼스입니다. 학교의 규모는 순천향대의 약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넓어서 Google map을 이용해서 다닐 정도였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고 학교 내에 셔틀버스도 운영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자연적이고 자유롭고 역동적인 느낌입니다. 맑은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이 모두 쾌활하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Gym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캠퍼스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이 멀어도 걷기 좋을 만큼 풍경이 예쁘고 동영상을 찍게 만듭니다 ㅎㅎ!</p>

<p>,2017-2학기~ 2018-1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① 전공수업</p> <p>(1) Multinational Bus Management (추천)</p> <p>이 수업은 Ito Kiyohiko 교수님의 한국어로 하자면 국제경영학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전공 책과 교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프린트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고 1학년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지만 일본어 교수님의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질문도 잘 들어주십니다. 숙제는 따로 없었지만 사전에 다음 수업 프린트를 읽어오는 것이 과제였고 시험은 레포트 없이 그 동안 배웠던 챕터들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봅니다.</p> <p>(2)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추천)</p> <p>이 수업은 거시경제학입니다. 이 수업도 1학년들이 대규모로 듣는 수업으로 강의실이 매우 큽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쉬우며 교수님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는 프레젠테이션을 참고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교수님은Wang Xiaojun이시고 중국인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의 발음과 목소리가 굉장히 크셔서 영어가 잘 들리는 수업이었습니다.</p> <p>(3) Global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추천)</p> <p>이 수업은 우선 경영수업과 조직행동론을 같이 배우는 수업입니다. 경영에 대한 지식보다는 조직행동론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크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루어져있고 평소에 2주에 한 번씩 교수님이 지정해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교수님이 제시해주시는 주제 중 3개정도를 골라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고 기말고사 때에는 팀프로젝트가 추가됩니다. 수업방식은 교수님이 굉장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하시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셔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 긴장되었는데 극복하고 나니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제 생각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되시겠지만 일반 미국의 학생들처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p>
---------------------------------------	--

#### (4)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이 수업은 미시경제학원론입니다. 거시경제학원론과 같이 미시경제의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고 수업은 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수업방식은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해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은 중간, 기말 그리고 몇주에 한번씩 test를 봅니다.

#### (5) International marketing

이 수업은 국제마케팅입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은 도리스라는 분이신데 현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수업이 빠세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업 자체는 자유로운 분위기이지만 개인발표, 팀별발표로 이루어져 있고 추가로 중국어 학생들과 하는 프로젝트와 매주에 팀별로 해야하는 과제들이 있고 데드라인에 맞춰 제출해야합니다. 과제가 정말 많아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 ② 교양수업

##### (1) Cls Instr: Piano I

이 수업은 기초 피아노 수업으로 무겁지 않은 수업입니다. 강의실에 피아노가 약 10대가 놓여져 있고 교수님이 가운데에 있는 피아노로 같이 연주하며 알려주십니다. 수업 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둘 다 필기고사와 실기고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반 친구들 앞에서 곡1를 연주하고 그 동안 배웠던 이론지식을 필기시험으로 봅니다.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그동안 배웠던 이론지식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외부에 있는 노인 병원에서 열리는 피아노 연주회에 참가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무겁지 않은 연주회라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피아노 실력에 따라 수업 난이도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2) Swimming: Beg & Intermediate (추천)

이 수업은 기초 수영 수업입니다. Lower campus쪽에 위치해 있는 수영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며 저는 오전 9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수영의 기초적인 자유영, 배영, 평영을 배웁니다.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몰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도움이 됐지만 수영을 완전히 배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ㅎㅎ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수영장 수영과 실제 바다 수영은 굉장히 다릅니다 !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수업을 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

### (3) Asian Dance I

이 수업은 인도댄스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춤에 관심이 많아서 듣게 된 수업입니다. 수업의 춤 자체는 굉장히 쾌활하고 뛰는 동작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춤을 접해보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 (4) Jazz Dance

재즈 댄스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재즈댄스의 스텝과 턴을 배웠었는데 저는 배우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업 자체는 즐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둘 다 실기 고사로 이루어집니다. 춤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 (5) ELI Listening & speaking

이 수업은 저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같이 하는 수업으로 수업 자체는 자유롭고 다른 수업보다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수업 내에는 개인발표, 팀 발표가 있고 다른 숙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 (6) ELI Writing

이 수업도 다른 나라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은 수업이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사실 이 수업의 교수님은 정식 교수님이 아니시고 대학원 학위 준비하시면서 교수를 준비하는 분이시고요, 저는 사실 이 수업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 (7) Hip-Hop dance(추천)

제가 들었던 춤 수업중의 하나로 수업은 부담 없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춤을 알려주십니다. 교수님이 앞에서 춤을 알려주시고 그룹으로 3팀을 나누어서 춤을 한번씩 취보고 시험은 따로 없었습니다.

### (8) Hula/Chant Ensemble (추천)

	<p>이 수업은 하와이의 전통 춤인 훌라 수업으로 현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수업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수강하였을 때, 정해져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못 들었던 교환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교수님께 메일 보내시고 빨리 자리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수업은 훌라 댄스의 기초 스텝과 손 동작을 배웁니다. 사실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와이 전통 춤을 배워보고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훌라 춤을 알려주시는 데 굉장히 엄하셔서 전공수업 못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배우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p> <p>저희 학교에는 국제학생을 서포트 해주는 부서가 있고 이 부서와 연관된 ISA 라는 국제학생동아리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학생을 서포트 해주는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병원과 보험문제 때문에 찾아뵙고 연락을 취했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ππ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학생들이 현지에서 병원, 보험과 같은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를 보고 조금은 교환학생들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생동아리인 ISA에서 꾸준히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이벤트에 참여했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지학생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가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현지 기후는 정말 좋습니다. 우선 8월달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무 덥다고 생각했지만 바람도 그만큼 많이 불어서 기분이 나쁜 더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12월 쯤에는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놀랐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차서 긴 옷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12월 달 쯤에는 밤에 너무 추워서 기모 후드를 땡스기빙데이 때 샀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3월-5월 정도 쯤에는 하와이 기준으로 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비도 많이 오는 시즌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또 춥습니다. 그리고 봄인지라 꽃이 많이 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 그리고 하와이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화산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 꽃가루나 화산재가 이유 없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ππ 그래서 이유 없이 아프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다면지 아니면 현지 친구에게 물어봐서 도움이 되는 약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쭙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은 가시기 전에 꼭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인지 확인하시고 가급적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은 가시지 않은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제가 생각했을 때, 하와이의 치안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혼자 돌아다니셔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홈리스나 마약하신 분들이 여럿 있어서 혼자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밤에 노신다면 친구들 단체로 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집에 가실 때는 Uber나 Lyft(미국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늦게 까지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기숙사에 사시는 분은 학교 내 24시 차량 서비스가 있으니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0 ) 기타(   )</i></p> <p>&lt;첫학기&gt;</p> <p>첫 학기 때에는 저는 기숙사에 살지 않고 학교에서 버스로 10분내에 있는 외부 숙소에서 살았었습니다. 일반 집처럼 생겼었고 방을 쉼어하고 화장실을 쉼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언니를 통해 알게 된 집이 였는데 가격도 한달에 50만원 정도였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다른 언니를 통해서 그 집을 알게 된 것이었지만, 사실 하와이에서 혼자 좋은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학교 외부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같이 가시는 분과 같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가끔가다 사기를 당할 뻔 하신 분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을 찾으시면 싸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외부숙소에서 살게 되니 학교 안에 현지친구들과 놀 기회가 상대적 적다는 것을 느꼈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과 시간을 채워서 놀았었고 행사에도 더 많이 참가했었습니다. 이걸 제 경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lt;두번째학기&gt;</p> <p>저는 두번째 학기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서 좋은 점은 학교가</p>

	<p>가까워서 걸어다닐 수 있다는 점이고 공강시간에도 집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지 학생들과 룸메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정말 복불복이고 다른 교환학생친구들은 룸메이트와의 문제 때문에 기숙사를 옮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사실 학교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외부와는 좀 동떨어져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비용은 외부에서 살 때 보다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제가 살 았던 wainani 기숙사를 제외하면 meal plan이 의무이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meal plan은 드시지 않으면 학교 내에 쓸 수 있는 point로 변하는데 사실 그 변하는 비율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ㅎㅎ 그래서 meal plan을 의무적으로 먹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밖에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ㅎㅎ</p>
식사	<p>학교 Meal Plan ( 0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 직접 요리 ( 0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우선 meal plan을 2번째 학기에 잠깐 먹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정말 다양하고 뷔페 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질리는 것을 느꼈고 한식이 그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meal plan을 먹지 않는 기숙사로 옮겼고 남은 meal plan 비용은 환급받았습니다. 혹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meal plan도 추천드립니다. 고기종류도 다양하고 샐러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살이 찐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ㅎㅎㅎㅎ meal plan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살이 찘다는 것을 여러 들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meal plan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그날 식당에 가서서 식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기숙사와 함께 meal plan을 신청하실 때 한끼의 비용과 차이가 없습니다..ㅎㅎ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저는 첫번째 학기 그리고 두번째 학기의 대부분을 외부 식당에서 사먹거나 제가 직접 장을 보고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선 외부 식당은</p>



교통	<p>매우 비쌉니다! ㅎㅎ 김치찌개가 한국 돈으로 만원이 넘습니다. 물가는 한국의 1.5배 ~2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meal plan을 안먹고 직접 만들어 먹는 장점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점, 장을 볼 때 스스로 비용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요리실력이 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볼 수 있는 곳으로는 대표적으로 Walmart, 돈키호테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88마트나 팔라마 마켓이라고 한식을 파는 마트도 있으니 한식이 드시고 싶을 때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저는 주로 학교에서 주는 학생증으로 무료로 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uber, lyft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시내교통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약

2000만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55만원 / 60만원	진에어/ 하와이언 항공
Fees	<p>저희 학교는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본교에서 내는 등록금비만 냈습니다.</p>	2학기 등록금 약 700만원
보험료	<p>저는 하와이 대학과 연관되어 있는 기본 보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싸시더라도 한국에서</p>	

	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숙소	외부 숙소 : 한 달 약 50만원 학교 기숙사 : 한 달 약 70-80만원	
식비	식비 한달 약30-40만원	
교통비	버스비 x, uber/ Lyft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름.	
책값	책 값도 전공 서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거의 10만원 정도로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Amazon에서 책을 빌리는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싸게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내 서점을 가셔서 used 책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약 2000 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우선 옷은 현지에서도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옷이 싸고 예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긴 옷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도 한국이 더 싸기 때문에 충분히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 친구들 사진을 몇 장 뽑아서 벽에 붙였었는데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ㅎㅎ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줄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하고 하와이에서 읽을 한국 책을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하시면 생필품을 살 일이 많으실 텐데 walmart를 추천드리고 그 근처에 Ross라는 곳이 있는데 매우 가격이 쌉니다. 우선 Ross 가서서 가격보시고 다른 곳과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 다이어리, 스케줄러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가시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때 시간관리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일기를 쓰거나 기록하시는 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수영복도 꼭 챙겨오세요 !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사실 교환학생이라는 것에 큰 목표와 의미가 없었고 변화를 싫어하는 제 성격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영어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연히 supers라는 교환학생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을 위해 공부하는 도중에도 '교환학생을 가서 정말 좋은 점이 있을까?'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교환학생을 합격 한 뒤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난 뒤,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와이에 도착 했을 때, 2달동안은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또 이유 없이 아프고 우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와이에서 의미 없이 지내다가는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바다나 하이킹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주말마다 열심히 바다와 하이킹 등 외부활동을 하니 오아후 섬에서 안 가본 바다와 하이킹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ㅎㅎ 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니 활기차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성격도 더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 시간을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정말 안 읽는데 지금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ㅎㅎ 책을 가까이 두고 보는 습관이 생겼고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유용한 정보도 얻고 영어 채널도 많이 보면서 영어단어도 많이 접하게 되고 외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으로써 제가 크게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학점, 영어공부,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제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생각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유도 생기며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첫 학기와 두번째 학기 동안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개인발표, 팀 발표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중압감을 완전히 이겨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저 스스로 과거의 제 모습과는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전공 수업에선 교수님이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시고 발표를 시키셨는데 그 수업만 되면 너무 긴장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을 이겨내고 싶었고 나중에는 팀을 대표로 종종 제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저만의 성공이지만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도 작지만 자기만의 작은 성공을 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또한 교환학생을 가서 좋았던 것은 한국에 있었다라면 못 만났을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의 장점을 알게 되고 정말 친구지만 본 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멋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는 사실 서울 권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얘기해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로서 본 받을 점도 많이 배웠고 또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하와이의 날씨, 바다, 산과 같은 자연들은 정말 아름답고 공기도 좋습니다. 저는 원래 등산을 한번도 안 해보았었는데 하와이에 와서 매주 등산을 하다 보니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와이 친구들과 좋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 스스로도 성격이 밝아졌고 웃고 있는 사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하와이에 가실 분들은 자신의 정말 예쁘게 웃는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_\_\_^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ㅎㅎ 제 후기가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영어를 정말 잘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전보다는 많이 발전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확실히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영어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졌고 지금은 경험 삼아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이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순천향대에 등록금을 내고 외국학교를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곳에서 그 나이에 자기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는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교환학생에 대해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자신이 원래 살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시고 도전하시고 자신도 모르는 자기만의 소중한 모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_\_^

(제 카톡 아이디는 kty1819 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라니카이 비치 하이킹 정상에서</p>	<p>너무 좋았던 스카이다이빙</p>
	
<p>홀라 공연 후 친구들과</p>	<p>ISA</p>



마우이 여행



스노쿨링하면서 본 거북이